

---

# 전문대생의 심리적특성,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간의 영향관계

권은경\*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 Work Values,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Kwon Eun-Kyoung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과,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중요성 및 대학생활지도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이 잘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은 직업가치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심리적 특성,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

**Abstract** In this study, production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and work values, and adjusting to colleg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and importance of college life was to become the basis of map.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production to adjust to college has a positive effect. In particular, self-esteem, how the formation of ego identity doeneunyeae adjustment to college so well that the results could be obtained. Seco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production value of the job was not found to affect the formation. Finally, the work valu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not affected by.

**Key Words**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ork values, Adjusting to college

---

### 1. 서론

청년기(靑年期 adolescence)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시기와 대학교 시기가 포함된다. 청년기는 사춘기에 의해 시작되는데 사춘기, 혹은 청년전기는 신체적이고 지적인 발달이 급격한 시기이다. 청년중기는 청년전기의 변화를 통합하고 적응하여 더 안정되는 시기이다. 청년후기는 성인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책임, 선택,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청년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고 실험하며 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실제 이 청년기에는 심리적 변화, 신체적 변화, 사회적 변화 등의 엄청난 변화에 적응해 가야만 한다.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해 주는 선행요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성격변인, 개인의 통제력,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학생활 등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3], [15], [18].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기에 개인 심리적 특성요인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실제 대학생활적응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에는 자아정체감 형성등과 더불어 중요한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이 중 현명한 진로 선택은 중요

---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cantatas@hanmail.net

논문접수: 2012년 7월 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7월 23일

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청년기는 점차 사회적 참여와 현실 적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을 진로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자신의 욕구, 적성,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성인과 유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갖고 자신에 대한 폭넓은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어 미래의 직업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시기이기도 하다[29].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어떠한 일 또는 직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준을 삼고 선호하게 되는 지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4]. 이러한 직업가치와 관련되어 기존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향은 주로 직업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중심에서 영향요인 분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14], [13], [4].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미래에 관한 예측과 지속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준비는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심리적 특성의 발달은 향후 진로 성숙도 및 직업가치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중요성 및 대학생활지도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심리적 특성

#### 2.1.1 자아존중감

[33]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특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리더로 일할 수 없으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며 모험을 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한 필요 없는 신경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편이라 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으며 자신감이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고 목적의식과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동기화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

여 주위의 자료들을 잘 이용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적응에 대한 [5]의 연구에서는 해외 귀국 청소년 집단과 국내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인 적응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적응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응을 예측해주는 변인들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변인들이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0]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이 적응문제를 갖게 되며 많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2.1.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자아이론을 기초로 [27]이 주장한 개념이다. 이것은 자아의 모든 기능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아개념[32], 자아체계[35], 자아경험의 변동 등의 형태로 규정되기도 하는 자아와 관련된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28]. 자아이론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Erikson과 그 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이론화 하였다. James의 자아이론은 자기를 경험적 자기와 순수한 자기로 분류하였다. 경험적 자기는 인지되는 자기로서 물질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 정신적 자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2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성취의 상태와 학업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성취군과 유예군이 학업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21]은 443명의 미국 남녀 대학생으로 그가 개정한 개체화 척도와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여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체화가 잘 진행되면 대학생은 높은 학업적응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개체화가 애매한 학생들이 낮은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높은 성취의 자아정체감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개정된 개체화 척도는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높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 2.1.3 대인불안

불안이란 인간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공통적 감정으로 인간에게 심리적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불안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고, 정신역동학적 중심개념으

로 생활 속의 방어반응으로서 낮은 감정 상태에서 매우 높은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자극에 의해 초래되는 감정들에 대처할 심리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감정을 다룰 수 없게 되면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 즉 불안은 관찰되기보다 불안의 에너지가 변형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난다[2]. 최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 위험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미래의 긍정적 대인관계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은 과소 추정하고,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가능성은 과대 추정한다고 보고되었다[34]. 아동 및 청년기에 대인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하고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며, 학업수행에 손상이 있거나, 등교거부, 우울 및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까지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6].

## 2.2 직업가치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직업만족을 주제로 연구하던 Super가 서로 관련성을 가진 직업을 묶어 직업가치(work value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7]. 직업가치관은 능력, 흥미와 더불어 개인차를 따지는 변인으로서,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다.

[14]는 중학생의 직업가치와 직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에 못지않게 외부적인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것, 직업적 활동을 통하여 사람을 사귄 수 있는 것 등에도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13]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 연구에서 보수, 성취, 능력, 지위, 기여 안정의 순서였으며, 내적 직업가치는 연령, 학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외적 직업가치는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19]는 재직근로자의 직업가치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요인 추출 결과가 [13]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 2.3 대학생활적응

적응이란 사람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도전에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의 경우에는 전체 대학생활적응 점수와 학업적, 사회적, 개인-정서적 적응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만족도에 있어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차에 대한 비교 연구시 성차에 대한 차이가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인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16]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적응 관련된 예측요인을 모색하기도 하였는데, 대학생의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완성력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밝혀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고, 일상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7]는 대학생의 생활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외적 통제감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하였다. 생활만족감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이었고, 생활만족감이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은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가 자아존중감 및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안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모보다는 부에 대한 애착정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애착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3. 실증 분석

### 3.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전문대생들의 심리적특성,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조사는 경남도 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30부 정도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117부 중 실증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10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3.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H1 :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자아정체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대인불안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H2 :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자아존중감은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자아정체감은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 대인불안은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H3 : 직업가치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기초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과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한 표본의 기초자료는 다음 [표 1] 과 같다. 구체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보니 10대가 39명, 20대가 68명으로 각각 그 비율은 32.5%와 62.7%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의 구성으로는 1학년이 27명, 2학년이 17명, 3학년이 66명으로서 각각 24.5%, 15.5%, 60.0%를 차지하였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연령	10대	39	35.5
	20대	68	62.7
	30대	3	1.8
	50대	15	12.5
	60대 이상	4	3.3
학년	1학년	27	24.5
	2학년	17	15.5
	3학년	66	60.0
전공	인문계열	98	89.1
	사회계열	1	0.9
	사범계열	11	10.0
성별	남자	2	1.8
	여자	108	98.2

### 3.4 신뢰성, 타당성분석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참고로 Cronbach's alpha란 질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들이 서로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질문 항목들 간의 상관계수들의 평균에 의해 구해지며 신뢰도가 받아들여질 만한 Cronbach's alpha값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6이상을 신뢰도가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전체변수에 대한 판별타당성을 다수의 변수들을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항목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약시키는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전체분산을 토대로 요인들을 추출하는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교회전 중 배리맥스방법(varimax)을 이용하였다. 요인수의 결정방식은 요인의 아이겐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이겐값이 1이상인 요인을 선정하였다[22]. 아래의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과 같이 요인 추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로서 자아존중감 문항 5개가 모두 잘 묶였으며 신뢰성을 묻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0.838로써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	요인1	Cronbach's α
자아존중감5	.825	.838
자아존중감1	.823	
자아존중감2	.785	
자아존중감3	.770	
자아존중감4	.691	
아이겐값	3.043	
비율(%)	60.864	

[표 3]은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정체감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로서 자아정체감을 묻는 문항을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5개의 요인으로 잘 묶인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신뢰성을 묻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832, 0.857, 0.796, 0.745, 0.712로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 자아정체감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ronbach's α
자기수용성5	.778					.832
자기수용성2	.770					
자기수용성4	.741					
자기수용성3	.686					
자기수용성1	.616					
미래확신성3		.848				.857
미래확신성2		.814				
미래확신성1		.797				
미래확신성4		.789				
목표지향성3			.770			.796
목표지향성2			.741			
목표지향성4			.693			
목표지향성1			.654			
주도성4				.807		.745
주도성2				.721		
주도성1				.693		
주도성3				.564		
친밀성1					.780	.712
친밀성3					.762	
친밀성2					.719	
아이젠값	6.142	2.393	1.910	1.630	1.167	
비율(%)	30.710	11.965	9.552	8.148	5.834	

[표 4]는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 중 대인불안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로서 대인불안을 묻는 문항 4개가 잘 묶였으며 신뢰성을 묻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0.712로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 대인불안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	요인1	Cronbach's α
대인불안4	.817	.712
대인불안2	.760	
대인불안3	.705	
대인불안1	.668	
아이젠값	2.188	
비율(%)	54.709	

[표 5]는 전문대생의 직업가치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로서 직업가치를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2개의 요인으로 잘 묶인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신뢰성을 묻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822, 0.726으로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 직업가치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	요인2	요인3	Cronbach's α
내재적가치5	.869		.822
내재적가치4	.849		
내재적가치3	.717		
내재적가치1	.614		
내재적가치2	.533		
외재적가치2		.800	.726
외재적가치1		.744	
외재적가치3		.744	
외재적가치4		.495	
아이젠값	3.851	1.507	
비율(%)	42.786	16.744	

[표 6]은 전문대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로서 대학생활적응을 학업적응, 정서적응, 대학생활만족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3개의 요인으로 잘 묶인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신뢰성을 묻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794, 0.790, 0.811로써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6〉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	요인2	요인3	요인4	Cronbach's α
학업적응4	.817			.794
학업적응3	.800			
학업적응2	.686			
학업적응5	.663			
학업적응1	.514			
정서적응4		.806		.790
정서적응1		.786		
정서적응2		.683		
정서적응3		.677		
대학만족2			.863	.811
대학만족3			.812	
대학만족4			.799	
대학만족1			.690	
아이젠값	4.291	2.343	1.423	
비율(%)	33.009	18.025	10.946	

### 3.5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심리적 특성의 조작적 정의

#####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33]의 자아존중감척도를 배제현(1984)이 번안한 척도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아정체감

[26]이 Erickson의 이론을 연구하여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을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 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및 대인관계 등 7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11]이 재 구성한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5개 영역을 토대로 하여 측정,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3) 대인불안

본 연구에서는 [31]의 대인불안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 IAS)를 토대로 하여 4문항으로 구성,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2) 직업가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30]의 연구에서 정리된 직업가치 요인 과 [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여 측정,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3) 대학생활적응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하여 [22]의 척도를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서 번안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학습적응, 정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여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3.6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과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을 각각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가설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로는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을 종속변수는 대학생활적응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R<sup>2</sup>가 0.289로서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8.9%로 나타났다. 아울러 F값은 14.351이며 P값은 0.000(P<0.001)로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표 7〉 가설1의 검증 결과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t	P	R <sup>2</sup>	F	P
	B	Beta					
상수	1.818		2.825	.006	.289	14.351	.000***
자아존중감	.222	.088	2.531	.013			
자아정체감	.351	.148	2.380	.019			
대인불안	.281	.158	1.780	.078			

(\* : p<0.05, \*\* : p<0.01, \*\*\* : p<0.001)

심리적 특성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첫째, 자아존중감은 t 값이 2.531, p값은 0.01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생들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t 값이 2.380, p값은 0.01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셋째, 대인불안은 t 값이 1.780, p값은 0.0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생의 대인불안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1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성장기, 학창시절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형성이 대학생활과 영향관계에 있으므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형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의 심리적 특성은 향후 미래의 학과 탐색, 진로 모색 등의 중요 요인이므로 청년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겠다.

2) 가설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로는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을 종속변수는 직업가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R<sup>2</sup>가 0.045로서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아울러 F값은 1.653이며 P값은 0.182로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요인은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심리적 특성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첫째, 자아존중감은 t 값이 1.938, p값은 0.05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t 값이 0.133, p값은 0.89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셋째, 대인불안은 t 값이 0.580, p값은 0.5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표 8〉 가설 2의 검증결과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t	P	R <sup>2</sup>	F	P
	B	Beta					
상수	3.147		5.171	.000	.045	1.653	.182
자아존중감	.161	.218	1.938	.055			
자아정체감	.019	.017	.133	.895			
대인불안	.087	.065	.580	.563			

(\* : p<0.05, \*\* : p<0.01, \*\*\* : p<0.001)

3) 가설3의 검증

가설3의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로는 전문대생들의 직업가치를 종속변수는 대학생활적응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R2가 0.002로서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로 나타났다. 아울러 F값은0.264이며 P값은 0.608로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전문대생의 직업가치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9〉 가설 3의 검증결과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t	P	R <sup>2</sup>	F	P
	B	Beta					
상수	3.092		6.385	.000	.002	.264	.608
직업가치	.061	.049	.514	.608			

(\* : p<0.05, \*\* : p<0.01, \*\*\* : p<0.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 대학생시기에 심리적 변화, 신체적 변화, 사회적 변화 등의 엄청난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며 향후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의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기인하여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과,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중요성 및 대학생활지도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전문대생의 심리적특성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이 잘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전문대생의 심리적 특성은 직업가치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문대생의 심리적특성과 대학생활적응간에 영향관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확대, 성별 분포의 균형, 계열의 배분 등을 통한 차이분석 등을 해 봄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결과해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선영(2000), “대학특성이 여대생의 취업희망직종 선택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윤희 외(2001), 정신간호학 총론, 서울, 수문사.
- [3]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pp. 85-114.
- [4]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5] 김충희(1995), “해의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문혜신·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1(2), pp. 429-443.
- [7] 박경혜(2005), “태권도지도자의 직업가치관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은민(2000), “대학생활 적응과 의사소통 유형 및 자

- 아존증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배제현(1984), “자아-아이덴티티와 자기존증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백지숙(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증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5, pp. 127-137.
- [11] 송현옥(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안강현(1998),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양한주(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정현옥(1996),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 심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연구, 25, pp. 83-101.
- [17] 조원호(1999), “대학생의 생활만족감 관련변인,” 국민대학교 교육논총, 19(1), pp. 67-85.
- [18] 최송미(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최용미(2005), “재직근로자의 직업가치관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최혜립(1999), “대학생의 자아존증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 상담과 심리치료, 11(2), pp. 183-197.
- [21] Baik, J. S.(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Construc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tion and psychometric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22] Baker, R. W. and B. Siryk(1984), Measur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pp. 179-189.
- [23] Challaglla, G. N. and T. A. Shervani(1996),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Effects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January), pp. 89-105.
- [24] Clark, D. B.(1993),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Alcohol Abusers, Paper Presented at the Anxiety Disorder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Convention, Charleston, SC.
- [25] Cross, H. and J. Allen(1970), Ego Identity Status,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p. 288.
- [26] Dignan, S.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pp. 476-483.
- [27] Erikson, E. H. (1960), The Problem of Ego Identity, in M. R. stein, (ed), Identity and Anx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 [28] Erikson, E. H. (1975), Identity, Psychological,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7, McMillan Company and Free.
- [29]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pp. 545-579.
- [30] Herzog, A. R.(1982). High school Seniors' occupational plans and values : trends in sex diggerences 1976 through 1980. Sociology of Education, 55(1), pp. 1-13.
- [31] Leary, M. R.(1983), Socal Anxiousness :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pp. 66-75.
- [32] Mead, G.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4] Spence, S. H., C. Dovovan, and M. Brechman - Tooussaunt, (1999), Social Skill, Social Outcomes, and Cognitive Feature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pp. 211-221.
- [35]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권 은 경(Kwon Eun-Kyoung)

[정회원]



- 2000년 0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0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6년 9월~현재 : 경남대학교 교  
육학과 강사
- 2006년 9월~현재 : 창원문성대 유

아교육과 강사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